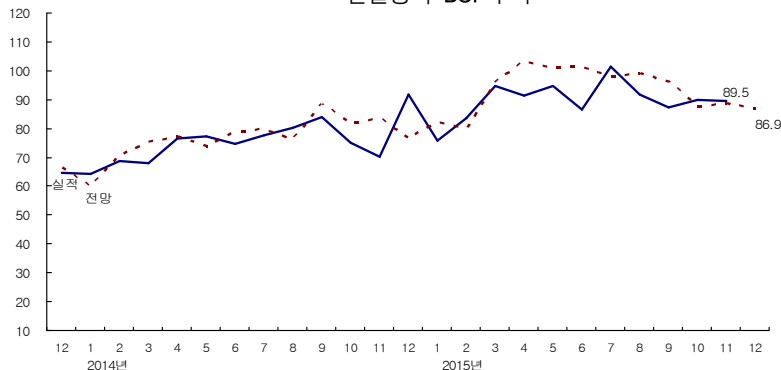


2015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1월 CBSI 전월비 소폭(0.4p) 하락한 89.5 기록
8월 이후 횡보세 지속

- 2015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소폭(0.4p) 하락한 89.5를 기록함.
- － CBSI는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는데, 8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 － 10월에 CBSI는 전월비 2.7p 상승해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으나, 11월 들어 다시 전월비 소폭 하락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함. 결국 CBSI는 8월 이후 4개월 연속 90선 주위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임.
- － 이는 상반기 CBSI 상승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주택경기 호조세가 하반기 들어 신규 공급과잉,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중금리 인상 등에 의해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SOC 예산을 늘렸지만 당장 건설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때문으로 판단됨.
- － 실제로 11월 신규 토목공사 지수는 84.4로 전월비 2.0p 상승에 그쳤는데, 추경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 토목공사 발주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건설기업 체감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경기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기업 지수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대형기업 지수는 하락,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비 7.7p 하락한 92.3을 기록하여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이에 따라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상회하던 지수도 다시 100 이하로 하락함.
-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비 0.1p 상승한 102.9을 기록해 전월과 유사한 체감경기 수준을 보임. 중견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한 것은 200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중견기업 체감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7.8p 상승한 71.1을 기록함. 7월(80.9 기록)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동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 ·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구 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5.8	83.5	94.9	91.4	94.6	86.7	101.3	91.6	87.2	89.9	89.5	88.7	86.9
규모별	대형	100.0	100.0	115.4	108.3	115.4	100.0	125.0	107.7	100.0	100.0	92.3	84.6	84.6
	중견	71.9	90.6	103.1	94.6	84.2	91.9	94.7	91.9	93.9	102.8	102.9	102.8	91.4
	중소	51.9	56.0	61.5	67.9	82.0	65.3	80.9	72.5	64.6	63.3	71.1	77.6	84.4
지역별	서울	86.2	98.0	107.9	102.5	103.0	97.4	115.2	100.5	97.2	100.6	98.2	88.7	86.2
	지방	60.7	62.2	75.1	75.6	82.6	71.0	80.4	78.4	72.4	74.3	75.9	88.7	88.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5년 12월 CBSI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2.6p 낮은 86.9를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12월에는 건설경기가 11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 통상 연말에는 발주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에는 건설기업들이 12월 건설경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임. 이 역시 최근 주택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때문으로 판단됨.
- － 2015년 1월~9월까지 중 7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익월 전망치가 실적치를 상

회하여 체감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10월, 11월에는 2개월 연속으로 전망치가 당월 실적치를 밑돌면서 체감경기 상황이 반전되었음.

- 지역별로 11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기업이 전월보다 2.4p 하락한 98.2를, 지방기업은 1.6p 상승한 75.9를 각각 기록함.
- － 서울기업 지수는 지난 7월과 8월 그리고 10월에 기준선(100.0)을 넘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11월에 2.4p 하락한 98.2를 기록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임.
- － 한편, 지방기업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1.6p 상승한 75.9를 기록해 지수가 소폭 개선됨. 비록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하였어도 상승폭이 2p 미만에 70선에 불과해 여전히 지방기업의 상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015년 11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99.4 기록

- 2015년 11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99.4를 기록함.
- － 신규공사 수주는 지난 8월 기준선(100.0)를 넘어선 103.9를 기록한 이후 9월과 10월 각각 91.3, 100.6을 기록해 기준선 100.0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함.
- － 11월에 들어와 다시 지수가 1.2p 하락한 99.4를 기록해 2개월 만에 다시 지수가 기준선(100.0) 아래로 떨어짐.
- － 다만, 지수가 기준선(100.0)에 근접하여 지난 10월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토목은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80선에 머물러 부진하였음. 한편, 주택이 기준선(100.0)을 넘어선 102.6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비주택 건축 또한 80선에서 90선으로 지수가 소폭 개선됨.
- － 주택 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전월보다 9.4하락한 102.6을 기록함. 비록 전월보다 수치가 하락하였지만, 기준선(100.0)을 넘어서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4.5p 상승한 90.6을 기록함. 비록 기준선(100.0)에 이르지 못해 부진하였지만, 지수가 80선에서 90선

에서 개선되어 악화된 상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2.0p 상승한 84.4를 기록함. 지수가 80선에 불과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과 중견기업의 지수는 기준선(100.0)을 넘어 전월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지수는 60선에 불과하였음.
-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전월 대비 7.7p 하락한 115.4를 기록함. 비록 전월보다 지수가 하락하였지만, 기준선(100.0)을 넘어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보다 5.5p 상승한 111.1을 기록해 전월보다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1.2p 하락한 67.4를 기록, 지수가 3개월 연속 60선에 머물.

< 신규 공사수주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9.4	115.4	111.1	67.4	114.7	75.7
	전망	99.1	115.4	97.2	82.2	108.9	83.7
토목	실적	84.4	100.0	88.9	60.9	91.6	73.2
	전망	98.9	123.1	94.4	75.6	110.8	80.3
주택	실적	102.6	115.4	118.2	69.8	117.3	79.8
	전망	97.1	107.7	100.0	81.4	107.4	81.3
비주택	실적	90.6	107.7	97.2	63.0	104.5	69.0
	전망	85.4	92.3	88.9	73.3	91.8	75.3

주 : 실적은 2015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5년 12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11월보다 0.3p 하락한 99.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통상 연말에는 수주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올해에는 연말 상승 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주택 수주의 전망지수가 97.1을 기록해, 12월에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 － 비주택 수주 또한 85.4로 11월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한편, 토목 수주의 경우는 98.9로 지수가 기준선에(100.0) 근접할 것으로 예

상, 연말에 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건설공사 기성 지수 91.7 기록, 전월보다 8.9p 하락
수주잔고 지수는 90.5 기록, 전월보다 10.9p 하락

- 11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8.9p 하락한 91.7을 기록함. 이로써 전월보다 공사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 기업의 지수 하락이 두드러짐.
 - 건설공사 기성지수는 지난 8월 107.9 이후 9월과 10월 각각 105.1, 100.6으로 점차 하락함. 결국, 11월에는 91.7을 기록함으로써 기준선(100.0) 아래로 떨어짐.
 - 대형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23.1p 급락한 92.3으로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함.
 - 중견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도 전월보다 5.5p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넘어선 102.8로 전월보다 공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3.8p 상승한 78.3을 기록함. 비록 지수가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70선에 머물러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다음 달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는 96.3로 기준선(100)에 이르지 못해 11월보다는 공사 진행 물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11월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10.9p 하락한 90.5를 기록함.
 - 결국, 11월 수주 잔고 상황이 지난 10월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대형기업의 수주잔고 지수가 100.0를 기록하고, 중견기업은 97.2를 기록함. 중소기업 지수는 71.7로 부진하였음.
 - 한편, 12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87.1로 11월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건설공사 기성	실적	91.7	92.3	102.8	78.3	100.8	77.4
	전망	96.3	100.0	102.8	84.4	103.1	85.4
수주 잔고	실적	90.5	100.0	97.2	71.7	101.1	74.0
	전망	87.1	92.3	94.4	72.7	92.4	78.8

주 : 실적은 2015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

- 한편, 11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96.6으로 상황이 다소 악화되었으며, 자금 조달 지수도 84.1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공사대금 지수는 지난 10월에는 기준선을 넘어선 100.4를 기록해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11월에는 이보다 3.8p하락한 96.6으로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보다 2.2p 하락한 84.1로 여전히 80선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96.6	100.0	111.1	76.1	103.1	86.6
		전망	93.1	92.3	105.6	80.0	98.6	84.5
	자금조달	실적	84.1	84.6	94.4	71.7	86.9	79.9
		전망	84.0	84.6	88.9	77.8	86.9	79.5

주 : 실적은 2015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

끝